

“전남에서 두 달 살아보는건 어때?”



해남 백포마을에서는 그림같은 숲 속 펜션에 머무르면서 독특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해남 백포마을 풀내음 펜션 전경. <해남군 제공>

<해남군 제공>

18개 시·군 31개 마을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귀농·귀촌 꿈꾸는 도시민들에 농촌에서 직접 살아보는 기회 제공
텃밭가꾸기에서 촌캉스까지 ‘시골 캠성’ 충만 ... ‘그린대로’서 접수

#. 해남군 현산면 백포마을. 조선의 대표적인 문인화가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선생의 고택이 있는 마을로, 매년 문화제도 열린다.

공재 윤두서는 겸재(謙齋) 정선, 현재(玄齋) 심사경과 함께 조선 후기 삼재(三齋) 화가로 일컬어지며 우리나라 미술사의 최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윤두서 자화상’ (국보 240호)의 주인공이다.

‘해남에서 살아보기’는 공재가 머무르던 집의 숨결을 느끼고 견뎌 길을 따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할머니집’을 컨셉으로 한 ‘시골 캠성’ 가득 한 촌캉스(촌+비캉스) 체험은 기본이다.

#. 영광 초록마을이 ‘살아보기’ 체험에 참여하면 매일 아침 집 앞에 마련된 드넓은 잔디밭을 뛰어다니거나 석창포 삼푸를 만들거나 모싯잎송편을 빚는 체험이 가능하다. 평소 키워보고 싶던 농작물 재배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골 공동체 생활도 체험할 수 있다. 장성 별내리마을에서는 천문 체험을, 신안 임자만났네 마을에서는 통발, 무인도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관런기사 3면>

일단 살아보는 건 어때?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직접 농촌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전남 18개 시·군 31개 마을에서 진행되는 ‘전남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도시민들이 선부른 선택으로 귀농·귀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실배의 경험’을 막고 농촌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알차게 꾸며졌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저출산으로 인구 180만명이 무너진 데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감소지역(16곳)이 있을 정도

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 입장에서 전남의 매력 접하도록 점차 생활인구를 늘리면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머물며 ‘살아보기’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성 다향울림촌 마을을 시작으로 전남 18개 시·군에서 직접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귀농·귀촌을 미리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전남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이 직접 2-3개월 거주하며 남도만의 전통문화와 생활모습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 살갑게 어울리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전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9년부터 시작한 대표적 전남형 정책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벤치마킹한 뒤 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명칭을 내걸고 전국으로 확대했을 정도다.

귀농형과 귀촌형으로 나눠 2-3개월 기간 번갈아 치유와 휴식,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숙박비와 프로그램 체험비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는 도시민들도 많다.

‘전남에서 살아보기’에 참여, 색다른 전남만의 로컬 라이프를 만끽한 2778명의 참여자 중 464명(16.3%)은 곧바로 전남으로 생활 터전을 옮겼다.

만족할 수준은 못되지만 전남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 인구 유입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이 때문에 ‘살아보기’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과 마을들도 참가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골 캠성’ 가득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공을 쏟고 있다. 텃밭가꾸기는 기본, 벼농사를 비



해남은 바나나·백향과·망고 등 전남지역 열대 과일 최대 생산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해남에서 살아보기’ 체험객들의 바나나 재배 농가 체험 모습.

롯, 돌산갯·고들빼기·매실 등 지역별 특화 작물 재배 체험에다, 모싯잎송편을 만들어보고 국악 체험에 염전 체험도 가능하다. 할머니집 같은 푸근한 마을 공동체 체험은 덤이다.

31개 마을은 올해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 지난 11일 차별화된 체험·영농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했다. 귀촌형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보성 다향울림촌 마을은 전남 31개 마을 중 가장 먼저 지난 13일부터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고 곡성 강빛마을은 오는 20일, 담양 운수대통마을은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관심있는 도시민은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에서 지역 여건, 마을별 숙박시설, 운영 프로그램 내용 등을 살펴보고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다정함과 온정이 넘치는 남도의 인심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짧은 기간이라도 농촌에 직접 살아보면서 귀농·귀촌을 할 준비가 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월급쟁이 세금 60조원 넘었다

법인세와 비슷 핑크년 세수 메워

법인세 등이 줄면서 국가 세수 중 월급쟁이의 세금 비중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비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해 나라가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작년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6년(31조원) 30조원에 달해, 2020년(40조9000억원) 40조원을 넘겼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2000억원 급증한 5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늘어,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10년새 2.4배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에 전체 세수마저 줄면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직장이 아닌 세입자가 국가 세수의 5분의 1 가량을 책임지는 셈이다.

반면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견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했다. 지난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2014년(42조7000억원)과 비교해 10년간 1.5배로 느는 데 그쳤다.

법인세 비중도 작아졌다.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올해 45주년 5·18 기념행사도 ‘반쪽’ 되나 ▶6면

굿모닝 예향 - 뿌리깊은 문화 K-해리티지 ▶19면

KIA 스프링 캠프 - 배터리 환상 호흡 기대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당신의 다음 클래스를 향해,
그리고 당신의 여유로운 삶을 향해

The new EQA & EQB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임중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A 2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5(도상) 5.4, 고속도로: 4.6) 1회 충전거리(km) : 367, 공차중량(kg) : 1985, 배터리 용량(kWh) : 65.9

EQ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상)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302, 공차중량(kg) : 2135, 배터리 용량(kWh) : 65.9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